

#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역량강화

## 군산시,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교육 진행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및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30%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재원으로, 시는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구책 마련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 직원들의 역할 및 대응지세 확립에 대한 내용, 국가예산 확보 전략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장은 “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감사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집행,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부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직원의 관심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신규지표를 발굴하고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략 교육을 통해 국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체계, 목적에비비, 생활밀착형SOC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전 직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적극적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33.2%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인 3,60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희망 나눔 캠페인 우수 기관 선정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 군산시, 희망 나눔 캠페인 우수 기관 선정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2019 희망 나눔 캠페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와 긴급지원 사업비 1억7300여 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73일간 진행된 사랑의 열매 캠페인에서 10억4700여 만원을 모금해 2017년 모금액의 109%를 달성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사업비는 올 해 동안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모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필요한 일에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시민과 각 기관·단체의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십시일반 모아진 이웃돕기 모금액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될 것을 믿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해망굴 새로운 문화 관광자원 개발 필요”

군산시의회 송미숙(비례대표) 의원이 해망굴을 새로운 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 군산은 관광을 단순한 이벤트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근대역사문화자원과 더불어 앞으로 기록도 선교

문화, 해양문화를 활용한 군산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 근대역사를 상징하는 해망굴을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문화자원으로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해망굴을 내부에 최신포사, 음향시설, LED미디어 파사

드 등을 접목시킨 복합멀티미디어 공간인 빛의 세계와 청년창업자 양성 이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인 손길의 세계, 주말이던 예술인 및 동호인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 외침의 세계의 세 가지 컨셉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1926년 건설된 반원형 터널 해망굴은 중앙로와 해망동을 잇는 생선유통의 경로이다.

일제강점기 곡물수탈경로였던 곳으로 근대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전쟁 중에는 군산에 주둔했던 인민군의 지휘본부가 있어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현대사의 아픔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런 예술인 및 동호인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 외침의 세계의 세 가지 컨셉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 군산시 민원담당

### 공무원 대상 친절교육

군산시가 지난 22일 창구민원 및 인허가담당자 등 주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친절을 주제로 군산시의회 서동완 부의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서동완 부의장은 공무원의 민원서비스에 대해 직접 느꼈던 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 익산시, 소라산~영등소라성당 도로 확장공사 착수

익산시는 소라산~영등소라성당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사는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로개설 공사는 남성중고와 남성여중고에서 영등소라성당까지 450m 구간에 대해 도로폭을 8m에서 10m

로 확장해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는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도로는 익산 서부지역에서 영등동으로 이동하는 우회도로로서 성모사거리의 교통정체를 피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

또 4개 학교가 위치한 학생들의 통학로인에도 인도가 없어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 도로의 확장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 따뜻한 사랑 나눔 ‘귀감’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지난 23일 관내 복지시설인 모세스 영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간식을 전달하고 울동 및 음악치료 등 예체능 프로그램 활동시간에 영아들과 참여했다.

또 시설 내외부 청소와 빨래 등 영아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청결활동에도 참여하여 보람되고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은 “직원들과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지난 23일 관내 복지시설인 모세스 영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아들에게 이웃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해 따듯

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 숭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군산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가 지난 22일 군산기업환경협의회, 환경관련 시민단체, 군부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산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강하구둑 제방 주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실시하는 하천정화활동으로 물 사랑, 물 절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생활 속

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 선포됐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